

나는 양의 문이라.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공부를 하십시오.

요한복음 10 : 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 :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0 :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풀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 : 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John 10:7-11 (KJV)

⁷ Then said Jesus unto them again,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I am the door of the sheep.

⁸ All that ever came before me are thieves and robbers: but the sheep did not hear them.

⁹ I am the door: by me if any man enter in, he shall be saved, and shall go in and out, and find pasture.

¹⁰ The thief cometh not, but for to steal, and to kill, and to destroy: I am come that they might have life, and that they might have it more abundantly.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자,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양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는 하나님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이라고 하신 것은 양들이 보호 구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시는 의미입니다.

양떼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양의 우리로 들어갑니다.

또 양떼들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먹을 것이 있는 풀밭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내려오는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문이 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보 사역을 통하여 하늘 문은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의 9 절을 보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10 :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 : 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꼴을 풍성히 먹을 수 있습니다.

양의 문은 중보자를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절도와 강도에 대해 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 :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적 강도와 절도에 어떤 사람들인지 말해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하는 과거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현재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르킵니다. 그 이유는 절도요 강도를 be 동사 현재로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⁸ All that ever came before me are -----:

그래서 절도며 강도는 예수님이전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도, 과거에 메시아인체하던 어떤 사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닙니다.

절도와 강도가 하는 일이 바로 앞장인 요한 복음 9 장에서 나옵니다. 원문에는 9 장과 10 장이 page break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 복음 10 장을 잘 이해하려면 9 장과 연결하여 읽어야만 합니다.

9 장에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 강도와 절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한 일이 명백히 예증되고 있습니다.

9 장에는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 : 1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을 보신지라

요한복음 9 :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9 : 6 이 말씀 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요한복음 9 :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날 때 부터 장님된 자를 고치셨지만, 절도와 강도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적대시 합니다.

요한복음 9 : 24 이에 저희가 소경 되었던 사람을 두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줄 아노라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을 고쳐 주신예수님을 시기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 : 22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이것이 바로 영적 강도이며 절도가 하는 일입니다.

영적 강도이며 절도가 하는 일이 무엇인요?

마태복음 23 : 13 화 있을찢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양의 문이 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문 앞에 지키어 서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 가려고 하는 자도 못들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무리를 훔치러 들어온 절도와
강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문을 닫아 놓고 자신들도 들어 거려 하지 않고 남도 들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절도며 강도
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9 장 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 : 4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되었던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제 있느니라

이 말씀과 이어지면서 10 장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 :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요한복음 10 : 2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하시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는 말을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양의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양의 우리는 개인의 우리도 있었겠지만 여러 목자의 양떼를 같이 가두어 두는 그런 우리도 많았는가 봅니다. 그런 우리에는 문지기가 습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 주면 목자들은 양을 우리에게 집어 넣어 놓고 우리 문 앞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날 아침에는 목자는 양의 문으로 와서 자기 양떼를 불러 이끌어 내어 풀밭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부르는 독특한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양떼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의 목자를 따라 나간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목자는 양의 문으로 와서 양떼를 데리고 나가지만 절도나 강도는 양의 문으로 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양이 들어 오고 나가는 양의 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 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이나 절도나 강도는 문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신 말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대해 공부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0 :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풀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다가 죽어서 천당가서 잘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절에 나가 부처님을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다가 죽어서 극락 세계로 가는 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근본 정신은 선행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부처의 자비는 같은 것이다. 기독교의 구원이나 불교의 해탈은 동일한 상태를 말하는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도올 김용옥 교수는 기독교의 구원과 불교의 해탈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말은 김교수가 영적 질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범신과 유일신인 창조주, 구원에 대해 얼마나 Mixed_up 되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선언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가시적 세계를 말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신적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 : 5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고린도전서 8 : 6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독교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적 존재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런 신적 존재를 세상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 : 4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을 철학적 용어로 말하면 범신(Pantheism)이라고 합니다. 범신이라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안에는 신적 요소가 깃들여져 있어 만물이 다 신으로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 안에 있는 신적 요소가 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신론적 구원관에서는 인간 안에도 신적 요소인 선이 있어 이 신적 요소인 선을 잘 배양하면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각도에서 범신론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이나 석가가 가르치는 자비는 모든 자연 만물 안에 깃들여진 동일한 신적 요소로서 같은 선이며 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 안에 깃들여진 동일한 신적 요소!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하든지 자비를 행하던지 그것을 잘하기만 하면 구원되고 해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구원과 불교의 해탈을 이렇게 설명하려 하는 것은, 범신론적 구원관에서는 논리적일지 모르나 기독교를 말할 때는 전혀 해당도 않되는 말입니다. 김용옥 교수는 자신의 동양철학적 범주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독교도 같다” 고 설명을 하려 합니다. 돌팔이 철학자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김용옥 교수의 주장은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옷 전체가 다 빼돌어지고 기형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와 범신은 아주 다른 존재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 : 5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고린도전서 8 : 6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에서 범신을 말하는 구절은 무엇인가요?

그러나 범신은 창조주 유일신에 의해 피조된 세상 신의 부류에 들어 갑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구절에서 창조주 유일신을 말하는 구절은 무엇인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된 신적 계열인 범신의 차이는 그 차이가 너무 커서 하늘과 땅 상보다 더 큼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와 피조된 존재와의 차이는 너무 커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피조물은 스스로 찾아 나설 수가 없으나, 피조된 신인 범신은 인간의 사색을 통하여 더듬어 가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범신은 땅의 소산이요, 유일신은 하늘에서 온 계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계시는 무엇입니까?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 계시의 범주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자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알지도 믿지도 못합니다. 특별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서울 구경은 해보지도 않고 서울 풍경을 말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용옥
교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불교는 땅에서 온 선생의 가르침이요, 기독교는 하늘에서 오신 분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5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의 기원이 흠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존재의 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 : 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도올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불교의 해탈이 같다고 말하는 것은, 민물 고기와 바다 고기를 손위에 놓고, “이 물고기들아, 너희는 같은 물고기이니 바다에서도 민물에서도 함께 살 수 있는거야” 하는 것과 같은 무식한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절도며 강도입니다.

요사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후대의 사람이 자신을 선지자라고 할 것이라고.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줄 착각하고 떠들어댁니다.

개골개골 마치 개구리처럼.

잠언 17 : 12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다른 종교의 구원은 -제가 불교라는 말대신 다른 종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제가 불교도들에게 어떤 적의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범신의 계열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이 구원을 주시는 양의 문이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러면 불교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참된 자기인 진아(眞我)로 육신의 모든 욕심을 제어하여 선을 행하고, 부처의 지혜를 얻으면, 모든 고통에서 해탈을 하여 신의 경지인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신적 성품인 선심이 불심으로 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선행과 지혜로 해탈하여 부처가 되는 것이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닌, 자연 만물에 내재하는 신들 중에 하나인 범신의 상태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신적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여러 신들, 잡신(雜神 ; gods)들의 계열로 타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

고린도전서 8 : 5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범신과 창조주는 신적 질서에서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큰 것임을 사색을 조금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범신의 상태로 돌입하는 것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식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창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창조주인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하나님으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하나 뿐입니다.

사도행전 4 : 12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음에 우리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말은

요한복음 10 :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얻는 꼴은 어떤 꼴입니까?

그 대답이 10 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 : 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부터 얻는 꼴은 생명의 꼴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꼴을 얻는다는 것은 영생의 꼴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영생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관념을 기독교인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받아 들여 성경을 이해하는데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영생과 몸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Eternal Life 와 Immortality 를 엄격히 구별하십니다.

먼저 설명에 들어 가기에 앞서 이 용어의 차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영생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안에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십니다. 피조물은 아무도 영원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모두가 죽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정의는 무엇인가?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다.

다음에 몸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불사성, Immortality 공부를 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가 불사성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시 잠자더 성도들이 일어나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데살로니가전 4 :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 4 :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윗 구절에서 변화된 몸을 갖게 되는 것을 지시하는 구절은 어느 것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재림시 들려질 육체는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가 아닙니다. 변화된 육체입니다. 시공의 제한을 초월한 변화된 육체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육체를 가질 때는 거기엔 육체의 죽음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노쇠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21 :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망이 다가 왔는데 먼저 영적 사망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사망이 왔고,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이 따라 왔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이 순서를 밟습니다. 먼저 영생이 들어와 영적 사망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시 육체의 회복 몸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몸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영생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 :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 :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 :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영생과 부활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를 말해 보세요.

영생은 이 세상에서 살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은 그런 사람이 마지막 날 즉 예수님의 공중 재림시 받는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부활에 참여하고, Eternal life 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Immortality 에 참여 합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는 영생과 불사성을 구별하지 않고 불사성, Immortality 를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만이 탁월한 진리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절도며 강도의 소리에 미혹되지 마시고,

반석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진리의 힘찬 발걸음을 계속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